

시각적 필터로서의 주택 House as Visual Filter

김문덕/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by Kim Moon-Duk



신도시에서

최근 일산지역에 신축된 단독주택들이 주목받고 있다.

일산 ㄱ자집, 학익재, 일산 22393 주택에서 TV드라마 '남자 셋, 여자 셋'의 주 무대로 나오는 주택에 이르기까지... 건축가들이 단독주택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로서 일산지역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일산에 가 보면, 적지 않게 실망스러운 점도 느껴진다.

미국 어느 도시의 주택가에서 있는 듯한 목조 주택들의 모습... 과연 신도시는 각 나라 건축양식들이 난립한 건축박람회 전시장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IMF의 위기는 우리의 문화적 시대주의에서 생긴 것이구나 하는 느낌도 들게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베를린이 베를린이라는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IBA건축전을 개최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분단 후 슬럼화된 지구를 재개발하기 위해 전세계 유명건축가들을 초청, 실제적인 건축물을 통해 주거공간에 대한 실험을 시도했던 것과는 달리 일산지역은 최근 수도권지역 중산층들의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경향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서 건축박람회 전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다.

우리나라를 홍보할 때, 반만년 역사의 단일민족이니 조상을 섬기고 고유문화를 사랑하는 민족 운운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과거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현재는 적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신도시의 목조주택들에서부터 조지 알마니퐁의 타원형 안경, 그리고 이스트팩의 가방에 이르는 서구 문화 시대주의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태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건축물을 통해 조형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건축가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비관적이기 보다는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일산장항 822라는 주택으로, 신도시에서 단독주택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건축가 송광섭에게 눈을 돌

려 보자.

주택건축가 송광섭

건축가를 주택건축가로 지칭하는 것은 건축가 자신에게는 실례가 되는 말인지도 모른다.

실제 송광섭은 대한건축사협회 회관을 비롯하여 반도패션 사옥, 사랑유치원에 이르는 비주거건축의 작품들도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를 주택건축가로 지칭한 것은 그가 다른 건축가들에 비해 많은 주택작품을 내놓았고 또 그의 작품을 건축잡지를 통해서 볼 때마다 주택건축에 애정을 기울이는 건축가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산장항 822 주택을 거론하기 전에 건축가 송광섭의 이전 주택작품을 한번 살펴 보자.

90년대 이전의 많은 작품들에서 보이는 특징은 우선 평면의 구성에 있어 계단실을 평면의 중심에 두어 조닝의 분리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형태나 재료에 있어서는 박공지붕에 벽돌계열의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한 작품이 대다수였다. 80년대 말 초가지붕을 유추해서 곡선형 지붕을 채택한 화성 B씨택이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면서 서서히 평면이나 형태, 재료에 있어 다양한 시도들이 그의 주택작품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물론 화성 B씨택 이후 그의 모든 주택 작품들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평면에서 채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나 평면구성에서 곡선이나 사선의 요소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전개하고 있고, 외형이나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도 볼트형 지붕의 사용이나 외벽재로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산장항 822를 방문하는 날, 송광섭이 이전에 완성하였던 일산지역 주택들도 함께 둘러 보았다.

온실이 전면에 위치한 일산주택 37, 그리고 일산마두 949가 그것이다.

이 두 주택을 살펴 보면, 서로 대각선으로 마주

보고 있는 두주택이 채의 분할이란 개념을 의식한 것, 외벽 일부를 시선을 도입하여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 담을 두지 않는 일산지역의 건축조례를 고려하여 일산마두 949의 경우, 식당 외벽에 창을 두는 대신 천창을 이용해 프라이버시와 채광을 해결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일산장항 822를 방문해 보자.

일산장항 822를 둘러보면서

일산지역 주택들은 우리가 도시에서 만나게 되는 도시주택들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단독주택의 경우, 담장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일산지역의 건축조례가 이 지역 단독주택들이 다르게 보여지게 하고 있으며 따라서 외벽은 경계와 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원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려는 의도가 단독주택에도 투영되고 있으며 이런 제한조건이 우리가 방문할 일산장항 822의 골격을 형성하는 전제 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팩스로 보내온 주택의 도면을 보고 느낀 것은 과거 머리속에 입력했던 송광섭의 주택건축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원이라는 도형을 변형한 평면구성이 약간은 산만하게 생각되었다는 점이다. 아마 명쾌한 기하학적 도형에 길들여진 필자의 선입관에 기인한 것으로 후에 생각되었고, 또한 상기한 일산의 두 주택이 송광섭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유보하게 하였다. 오히려 실제 방문한 건축물 자체가 더 새롭게 느껴지면서 선입관을 불식시켰다.

남서측에서 바라보았을 때, 안마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곡선형 매스와 장방형 매스의 대비, 주출입구측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치장벽돌마감으로 처리된 곡선의 벽체와 가벽, 그리고 북서측 입면에서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망입유리로 처리된 반투명의 가림막 등으로 인상이워지는 이 주택을 보면서 건축가 송광섭이 그의 이전에 일산주택들과는 다른 자세로 이 작품에 전력투구하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필자가 이 주택을 둘러 보면서 생각했던 키워드는 “프라이버시장치로서 필터(Filter)”이었다.

프라이버시장치로서의 필터

일산지역의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단독주택에 있어 담을 두지 못하는 건축조례 때문에 일반적인 도시공간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는 프라이버시의 노출에 대한 심리적 공포(?)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며 따라서 프라이버시의 유지를 위해 건축가는 어떤 공간적 형태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했을 것이다.

장항 822를 둘러 보면서 건축가의 설계소묘에서의 첫단어 “신도시 세 갈래 길모퉁이”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

다. 8미터 도로에 면한 모서리가 찢린 부정형하게 느껴지는 대지형태에 건축가는 어떤 건축적 질서를 도입할까 고민했을 것이고 3방향으로 노출된 공간에 중심적인 원형공간이 질서를 만들어내는 장치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미 논현동 L씨 주택에도 시도하였던)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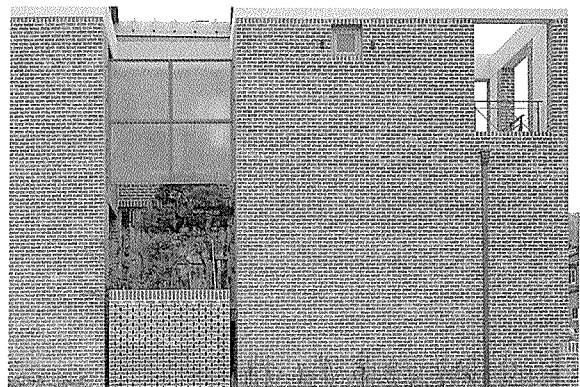
그리고 북서측의 매스는 도로와 평행한 장방형 매스를 취해 곡선벽으로 처리된 거실측 매스와 대비적인 균형감을 이루도록 의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3방향으로 노출된 이 대지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곡선의 기벽에 와이어 매쉬를 설치해 만든 미래의 차면장치(후에 칠팜쿨이 와이어매쉬를 따라 자리면 형성되는), 북서측입면에 설치된 망입유리로 만들어진 차면시설, 주출입구에 세워진 편칭메탈로 처리된 구조물, 그리고 1층 주침실과 식당 사이 상부를 오픈하고 바닥을 마루로 처리한 공간에서 있는 소나무들이 이 주택공간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방어하면서 내부에서의 시선을 내향적으로 제어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터라는 공간적 장치외에도 이 주택은 시각적 변화를 유발하여 실내외에서 공간감을 풍부케 하는 장치들이 의도화되고 있다.

실내외에 위치한 계단은 단지 수직이동장치만이 아닌 시각적 변화를 유발하는 장치로 오르면서 폭이 점점 좁아지거나 넓어짐으로 해서 시각적 변화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주택 역시 90년대 이전의 그의 주택처럼 계단실이 실내공간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공간을 조닝화하고 있지만 그 처리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의 주택들에서 계단실이 실내공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외부공간에 대해 폐쇄적인 형식을 취한 예가 많았던 데 비해 최근 그가 설계한 주택은 다천장이나 장항 822에서와 마찬가지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의 시각적 변화감을 최대한 증폭시키도록 시도하고 있다. 가벽 역시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형태적 질서를 조정하는 장치로 기능하면서 2층 발코니에서 바라보았을 때 시각적 프레임을 형성하는 틀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 주택의 골격을 살펴보면, 하나의 매스로 구성된 것 같지만 주침실과 식당간의 오픈 공간이나 계단실의 처리(계단의 발판 사이를 개방시켜 주출입구로 진입하면 발판 사이로 정원이 보이도록 하는)를 통해 채의 분할이라는 개념이 이 주택공간에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건축가는 이 주택의 실내외공간에서 개방과 폐쇄가 순환되는 전통공간의 느낌을 이 일산지역이라는 조례와 엮물려서 세심하게 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장항 822를 떠나면서

이 주택의 주출입구측 외부공간에 오브제로 처리된 자그마한 석조(石槽)가 놓여 있고 그 석조안에는 금붕어가 노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치 도시생활에서의 여유를 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주택에서의 자연과의 교감을 암시하는 것 같아서 즐거웠다.

지하 서재의 창을 통해 경사진 정원을 감상하도록 한 배려나 맞바람이 치게 고안한 창호의 배치, 2층 침실에

서 고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한 처리, 홀통을 통해 흘러내리는 우수를 유희적 요소로 처리한 것 등 건축가 송광섭이 이제까지 그가 시도하였던 공간장치들을 통합적으로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산의 전작들에서 보여진 것처럼 건축가에서 건축주에게로 사용권이 넘어간 이후 거실이나 작업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수납공간에 대한 건축가의 배려가 이 주택의 거실공간이나 서재에 행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비단 이 주택의 문제 뿐만 아니라 많은 건축가들의 작품을 몇년 후 방문해보면 거실 등의 공간이 의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여간 장항 822는 건축가 송광섭의 노력이 결집한 역작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건축가의 시도를 통하여 건축가 자신의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장항 822를 떠났다.

What comes to focus in recent discussions of Korean architecture are the newly developed private housings in the new city of Ilsan. They are now the objects of the architect's various experiments on this building type, and popular among people since many provide locations for TV dramas and sitcoms. An actual visit to Ilsan, however, is not such a satisfying experience. Rather presenting the looks of a fragmented American landscape consisting of wooden houses, it is a display of uncompromising variety of architectural styles. Unlike the IBA plan of Berlin, which, for the purpose of redeveloping a decaying region, invited international architects to participate in a demonstration of new ideas on space and living styles of housing, the houses of Ilsan merely reflects the recent inclination of Seoul's middle class towards private housings.

We often mention ourselves as a nation proudly inheriting our unique culture that sums up the history of 5,000 years, but as we look into contemporary circumstances, these words do not seem to ring true. The flooding consumption of Armani's oval shaped glasses, the Eastpack backpacks and the Ilsan exotic housings all seem to be signs of our cultural dependence on foreign trends.

But among these madding crowd we still find architects striving to present his/her will to form, and one of them is arguably Song Kwang-sub of Hwan Architects, who recently completed his housing work in Janghang-dong 822 of Ilsan.

It may be politically wrong to call an architect an housing expert. Actually, Song has a number

of works that are not private housings, such as the headquarters for the Institution of Korean Registered Architects, the office for Bando Fashion Co., and the Sarang Kindergarten. But his works includes the number of housings which far exceeds that of other architects, and, over the last years, he has reminded us of this fact through many architectural magazines. Before the discussion on his Janghang 822 work, let's take a quick look back on his previous housings. His housing works before the 90s showed the unique composition of plan placing the staircase in the center and thus zoning its spaces, and also the continuous use of traditional materials and forms such as bricks and slanted roofs. The Hwasung B House of the late 80s marks a transition of style, with its waving roof suggesting the shape of traditional thatched houses and other 'new trials on the space's arrangement, shape and material. As many of his housings are in Ilsan, a visit to the city gave many chances of encountering his works, for instance, the Ilsan House 37 and the Ilsan Maru 949. These two housings, placed nearby each other following a diagonal line, display similar features: the arrangement of spaces considering the traditional spatial unit of chae; the slanting of a part of the exterior walls; and following the code of Ilsan region, preventing the use of physical boundaries of traditional fences, or dams. To secure privacy, the dining room of Maru 949 has a window not on the wall but on the ceiling, inviting natural sunlight into the interior space.

The private houses of Ilsan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typical housings in other cities. The code that discourages the use of dam is a crucial factor that

marks their difference: here the exterior walls are the boundary of both interior-exterior spaces and each dwellings. The overall environment seeks an atmosphere of an idyllic housing, which provides the background for our investigation on Janghang 822.

The diagram of the plan that I received from the architect by fax had a rather unexpected shape: it seemed quite different from his previous designs, rather chaotic with variations on a circular form. This was later proven as a result of my preconception oriented towards geometrical forms, which was more than shattered on my actual visit to the building.

Seen from the south-west, the contrast between the curving and rectangular volumes in the inner garden provided a striking impression. The view from the main entrance displayed the waving wall finished with red bricks, whereas the north-west elevation showed the use of opaque glasses for visual privacy. These all suggested that the architect has approached this project from a totally new stance, which in some reason reminded me of the expression "filter as a device for privacy."

In the Ilsan city, where, as mentioned before, the regional code prevents the use of dam as boundary of each housing, there is some anxiety of the occupants on their living privacy, which ultimately affects the design of the architect.

Looking into Janghang 822, what came to mind was the beginning of the architect's own description: "a corner in a three way street from a new city." A street corner facing an 8-meter-wide road with an irregular shape, open to three sides, must have stimulated the architect, whose solution was to create an order with a center-oriented circular layout (This method has already been exploited in the architect's Nonhyun L House). Its exposure to three sides was dealt with the wire meshed wall, enabling vines to grow and create a screen, the wire-inserted window on the north-west side, the structure made of punched metal on the main entrance, and the pine trees in between the main bedroom and the kitchen. These protect the interior spaces from the gaze of the street, and direct its own inner gaze in a introspective way.

Apart from this device of 'the filter', this work presents various changes in its visual structure to provide a wide range of spatial experiences. The staircases located in the interior and exterior spaces are not only for vertical circulations but an object inducing variety in visual expression, which is further enhanced by its gradual change in width.

This house, like Song's previous works built before the 90s, has the staircase at the center of the interior space, thus zoning its plan composition. But its method shows a difference: whereas the earlier examples display the use of the staircase quite exclusive to the outside, here it is open to it and uses it as an object of visual changes. The free standing wall controls the physical dimensions of the whole composition, and simultaneously acts as a visual frame that arranges the view from the second floor's balcony.

The overall layout seems to be structured of a single volume, but as we can see in the open space

between the main bedroom and the kitchen, and in the exclusion of rises in the stairs that opens the entering person's view to the garden, the method of articulating chae in the inner spaces still remains.

The regional architectural style of Ilsan has come in harmony with the spatial experience of Korean traditional housings alternating between opening and closing, and created this subtle but effective piece of work.

There is a small carved out stone just outside the house's entrance, where we can see goldfishes swimming. It seemed to be enjoying the silence from the urban life, and at the same time symbolized a healthy dialogue with nature.

The window of the basement's study looking out to the slanted garden, the layout of windows to create a head wind, the window of the second floor's bedroom opening up to the sky, and the joyful use of dripping waters from the flume show that the architect's various creative devices are at play as a whole.

But as we can see in his other housings of the Ilsan area, the use of the client does not always correspond to the architect's intentions, so this should have been more an important factor in the design, especially in the living room and the study.

Nevertheless, this work is a tour de force synthesizing Song's past efforts. May these trials add to reach the architect's continuous endeavor to establish his own identity.

